



아름답고 유쾌한 세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뷰티풀 선데이>**

일본의 대표적 극작가인 '니카타니 미유미'의 희곡을 각색해 공연 중인 국민 한양레피토리의 <뷰티풀 선데이>는 독특하고 참신한 소재를 따뜻한 사람과 유쾌한 웃음 속에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손색이 없고, 공연의 깊이가 할 '재미'라는 마약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성애' 문제나,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김영안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따뜻하고 곡해 없는 시각으로 담아낸 이 작품에 대해 관람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내야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바람 불 때 대히로 극장을 찾아 <뷰티풀 선데이>를 만나 보려고 권하고 싶다.

☞ 김신혜 *작가 영화감독

정진은 자신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옆에서 잠을 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데, 준석만은 몇 년을 옆에 있어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준석을 사랑하고 '에이즈' 라는 준석의 병까지 다 함께 이겨내고자 직장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준석을 보살피고자 한다.

일본의 대표적 극작가인 '나카타니 마유미'의 희곡을 각색해 공연 중인 극단 한양레퍼토리의 <뷰티풀 선데이>는 독특하고 참신한 소재를 따뜻한 사랑과 유쾌한 웃음 속에 담아낸 작품이었다.

정진, 준석, 은우 세 남녀는 작은 베란다가 딸린 원룸에서 만나 일요일 하루 동안을 함께 지내며 서로의 사랑과 사연과 아픔과 고통과 인생, 꿈을 함께 나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서 친구로 사이를 좁혀가는 세 사람의 하루는 몇 십 년보다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

동성애 커플인 준석과 정진. 에이즈 환자인 준석. 늘 밝고 강한척하지만 유부남과의 애절한 사랑과 실연으로 아픈



<뷰티풀 선데이 Beautiful Sunday>의 줄거리

동성커플인 정진과 준석의 동거 3주년 기념일인 어느 일요일 아침, 정진은 낯선 여자인 은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은우 또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고 놀라워한다. 느닷없는 은우의 출현 은우는 정진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서 살았었는데 사연이 있어 열쇠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술이 취해 자신도 모르게 살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너무나 정신없어 하는 정진과는 달리 곧 평정을 되찾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정진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설명해주며 자연스럽게 집에 머물게 된

상처를 안고 있는 은우.

준석과 정진은 서로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고 아끼지만, 준석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이고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라 정진에게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 동거 기념일 파티에서 헤어지자고 선언한다.

정진은 자신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누가 옆에서 잠을 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데, 준석만은 몇 년을 옆에 있어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리고 준석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되고 행복하기에 준석을 사랑하고 '에이즈' 라는 준석의 병까지 다 함께 이겨내고자 직장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준석을 보살피고자 한다. 남자에게 관심도 없고 활달하고 고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은우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으며 자신감도 잃고 사랑에 대해 믿지 않는다.

상처 입은 영혼들, 서로를 어루만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민이 가장 크고 자신의 아픔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은우 역시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자체를 불신하게 되었다.

다. 준석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은우는 정진과 준석이 커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고민들을 듣게 되면서 조심스레 자신의 마음도 드러나게 된다. 에이즈 환자로 정진과 헤어지려는 동성애자 준석, 준석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오붓하게 살려는 정진, 유부남에게 실연당한 은우. 그들은 일요일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요일을 보내게 된다. 상처를 소리 없이 감싸 안는 파스한 이들 세 명은 마지막 그들만의 반짝이는 파티를 하며 아름다운 일요일 하루를 마무리 한다.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불륜의 주인공인 유부남과의 연애. 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모두 보편적인 시점에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기피하고, 비난할 상황들이다. 하지만 세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서로에 대한 진정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편견과 보편적인 상식의 선을 어렵지 않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다 우연히 준석과 정진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성애자들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보며 사랑을 믿게 되고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즈에 대한 선입견과 상식에 대해서도 곡해 없이 잘 담겨 있다.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극복, 문화의 힘이 필요

이 한편의 연극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마 엄청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불륜의 주인공인 유부남과의 연애. 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모두 보편적인 시점에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기피하고, 비난할 상황들이다. 하지만 세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서로에 대한 진정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편견과 보편적인 상식의 선을 어렵지 않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참으로 난해한 소재들을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사랑스러운 세 주인공의 캐릭터는 개성이 너무나 강한 듯하지만 공연 내내 가만히 빠져들다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또 흔치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연극 속에는 제법 구체적이고 학습의 흔적이 묻어나는 동성애 커플의 생활상과 여러 가지 애환이 잘 녹아있고, 에

날 것이다. 따뜻하고 파격적인 멜러영화로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았던 영화 '너는 내 운명' 이후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갖는 거부감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 연극도 사람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연극 <뷰티풀 선데이>는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했다. 연장 공연이 끝나고 9월부터 앵콜 공연이 시작되는데,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손색이 없고, 공연의 갖춰야 할 '재미'라는 미덕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성애' 문제나,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따뜻하고 곡해 없는 시각으로 담아낸 이 작품에 대해 관람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내며 많은 이들에게 선선한 바람 불 때 대학로 극장을 찾아 <뷰티풀 선데이>를 만나 보라고 권하고 싶다.